

화학제품 · 섬유공장 유해 · 위험 방지

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사고위험 · 안전작업 기술자료 6만부 배포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해 · 위험작업 전에 안전한 작업방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레스 · 유기용제 취급작업 등 12개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사고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등을 담고 있는 간이 기술자료(One-Page Sheet)를 5개 외국어(6만부)로 개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집, 조선족 교회 등 외국인 노동자 단체 등에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로 편집됐다.

12개 유해 · 위험작업은 프레스 작업(안전장치), 산소결핍작업, 휘발성 유기용제 취급작업, 고열작업, 연마작업, 교류아크용접작업, 감전위험작업, 중량물 운반작업, 소음작업, 뇌 · 심혈관계 질환관련(2종) 등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위험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유해 · 위험작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전 · 보건표지 10종을 선정, 5개 외국어로 제작(1000세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보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 보건 의식 제고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성이 높은 포스터 10종을 선정해 5개 외국어로 1000세트를 제작 · 보급할 예정이다.

외국인 산업재해가 금속제품제조 · 가공업(16.2%), 화학제품 제조업(13.9%), 섬유제품 제조업(12.5%)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협착 재해가 전체의 61.6%를 차지하며, 5대 반복형 재해가 전체의 87.1%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5대 반복형 재해는 협착, 추락, 낙하 · 비래, 충돌, 전도 등이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2001년 11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2002년 1월부터 추진중인데, 외국인 노동자 단체의 협조를 받아 2002년 들어 현재까지 7회에 걸쳐 575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 · 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3월 현재까지 1099개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 ·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또 외국인 재해 발생기업 등 77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5대 반복형 재해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해 사용중지 7건, 시정지시 102건, 현지시정 36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노동부에서는 이 외에도 2002년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기계 기구별 안전수칙, 안전작업방법, 안전표지판, 보호구 착용요령 등 안전수칙을 쉽게 풀이한 안전수첩을 5국 국어 외에 타이어 · 우즈베키스탄 · 스리랑카 등 8개 국어로 제작해 보급하고, CLEAN 3D 사업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01>